

BTX 수입가격 강세 지속...

한국은행, 벤젠 8.7%에 자일렌 13.4% 상승 ... 나프타 11.9%

고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수출입물가 동향>에 따르면, 수입물가지수(2000년=100)는 118.80으로 2004년 9월에 비해 6.3p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 수입물가 상승률은 5월 -2.7%를 나타낸 이후 6월 1.8%, 7월 3.6%, 8월 2.7% 등으로 상승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9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2004년 11월 8.2% 이후 10개월만에 최고수준으로, 전월대비로도 2.0% 올라 5월 -2.7%에서 6월 2.8%로 오름세로 돌아선 이후 4개월째 상승행진을 지속했다.

수입물가의 상승세는 원유와 금속소재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데 영향을 받아 원자재와 자본재, 소비재 등이 일제히 오른 데 따른 것이다.

기초원자재는 허리케인 피해, 파업 등으로 인한 공급 감소,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 상승 영향으로 농작물, 종이원료, 연료광물, 비철금속소재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올라 전월대비 2.1% 상승했다.

중간원자재는 과잉재고로 인한 중국의 수요부진 등으로 금속1차제품이 내렸으나, 국제유가 상승 및 원화환율 상승으로 석유화학제품 등 대부분이 올라 전월대비 2.1% 상승했다.

섬유제품은 원재료비 상승 및 원화환율 상승으로 면직물, 화섬직물, 화섬방직사 등이 올라 1.9% 상승했고,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나프타, 방카C유, 프로판 등이 올라 10.8% 상승했다.

화학제품은 허리케인 피해로 인한 미국 정제시설 가동을 저하, 원화환율 상승 등으로 프로필렌, 벤젠 등 대부분이 올라 2.9% 상승했다.

화학 관련제품 수입물가 등락률(2005.9)

(단위: %)

구 분	등락률	주요 등락품목 및 등락률
섬유제품	1.9	면직물 9.7, 화섬직물 2.0, 화섬방직사 1.7
석유제품	10.8	나프타 11.9, 방카C유 7.3, 프로판 10.2, 부탄 10.8
화학제품	2.9	프로필렌 7.5, 벤젠 8.7, 자일렌 13.4, SM 9.0, 암모니아 11.8, Polyester섬유 15.7

한국은행 관계자는 “9월 미국을 잇달아 엄습한 허리케인 Katrina와 Rita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이 수입물가 상승의 주요인”이라고 해석했다.

<화학저널 2005/10/17>